시비분별 내려놓고 오로지 화두정진하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宗師驗人端的處(종사험인단적처)
等閒開口便知音(등한개구변지음)
一面若無靑白眼(적면약무청백안)
宗風爭得到今日(종풍쟁득도금일)

종사(宗師)가 사람을 시험하는 단적처(端的處)는 한가로이 입을 엶에 문득 지음(知音)함이로다. 바로 면전을 대하여 청백안(靑白眼)이 없으면 어찌 종풍(宗風)이 오늘에 이름을 얻으리오.

모든 대중(大衆)들이여!

금일(今日)은 병신년(丙申年) 동안거 결제일(冬安居 結制日)이라. 이 삼동구순(三冬九旬)의 결제기간동안 대중들이 모인 것은 모든 반연(攀緣)을 다 끊고, 시비분별을 내려놓고 오직 각자가 대오견성(大悟見性)을 위함이니, 대중들은 오로지 화두정진에만 몰두하여야 할 것이라.

이 일을 조금이라도 미루는 마음이 있다면 벌써 십만 팔천 리 나 어긋남이로다. 만약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이 달에 못하면 다음 달에 하지' '금년에 못하면 다음 해에 하지' 하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면 일생동안 허송세월을 보내게 됨이로다.

그러니 모든 대중은 이 한 철에 반드시 견성(見性)하리라는 각오로 일각일초(一刻一秒)도 허비하지 말고 화두와 씨름해야 할 것이라.

이 귀중한 시간, 오늘이라는 날은 다시는 오지 아니함이로다.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곧 시시각각 죽음의 문턱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니, 누구라도 마음광명을 밝히는 이 일을 소홀히 한다면 염라대왕의 추심(推尋)을 피할 길이 없음이로다. 그러나 이 일을 분명히 밝혀서 자기의 마음광명을 본 사람에게는 생사의 괴로움이라는 것이 원래 없는 법이로다. 〈중략〉

옛날 중국(中國) 당(唐)나라시대에 한산(寒山) 스님이 천태산(天台山)의 국청사에 살 당시에 풍간선사(豊干禪師)에게 물었다.

"옛거울(古鏡)을 닦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빛을 비춥니까?"

풍간선사가 말하였다.

"빙호(氷壺)는 원래 그림자가 없거늘, 원숭이가 공연히 물속에 비친 달을 건지려 하는 것과 같구나."

한산 스님이 다시 말하였다.

"그래도 아직 비추지 못했으니 스님께서 다시 일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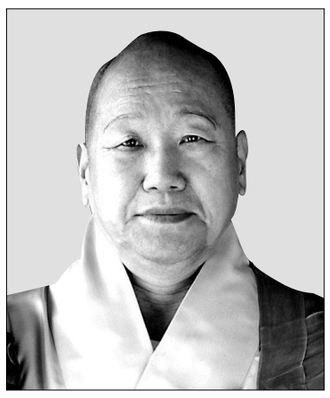
풍간선사가 말하였다.

"만 가지 덕(德)을 가져오지 않았거늘 나에게 무엇을 이르라고 하는가?"

이 두 분의 문답이야말로 천추(千秋)에 빛나는 법거량(法擧揚)이로다.

또 일일(一日)에 암두선사(岩頭禪師)가 덕산(德山) 방장스님께 참배(參拜)하러가서 방장실(方丈室)문을 열고는, 한 발은 방안에 들여놓고 한 발은 마루에 두고 묻기를,

"제가 성인(聖人)입니까? 범부(凡夫)입니까?"하니,



덕산선사가 석화전광(石火電光)으로 벽력같은 할(喝)을 하니, 암두 스님이 아무 말 없이 큰절을 하고 물러나왔다. 이렇게 사제지간(師弟之間)에 멋진 법담(法談)을 나누었다는 소문이 제방(諸方)에 분분했다. 그런 후에 세월이 흘러 동산선사(洞山禪師)에게 법담(法談)이 전해져서 듣고 말하기를,

"암두전활(巖頭全豁) 상좌가 아니면 덕산선사의 할을 알아듣기 어려우리라"고 하셨다.

동산선사의 그 말을 암두 스님이 전해 듣고는 "동산늙은이가 좋고 나쁜 것을 가리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하는구나. 덕산선사가 할을 할 당시에 내가 한 손은 들고 한 손은 내렸노라"라고 말했다.

대중들은 말해보라!

어느 곳이 한 손을 든 곳이며 어느 곳이 한 손을 내린 곳이냐?

정미년(丁未年 1965년) 하안거 해제일에 묘관음사에서 산승(山僧)이 향곡선사(香谷禪師)를 찾아가 묻기를

"불안(佛眼)과 혜안(慧眼)은 묻지 않거니와 어떤 것이 납승(衲僧)의 안목(眼目)입니까?"하니, 향곡 선사께서

"사고원래여인주(師姑元來女人做-비구니노릇은 원래 여자가 하는 것이니라)니라"하시기에

"금일(今日)에야 선사님(禪師任)을 친견(親見)하였습니다"라고 답하니

"네가 어느 곳에서 나를 봤는고?"하셔서 "관(關)!"하고 대답하니, "옳고, 옳다!"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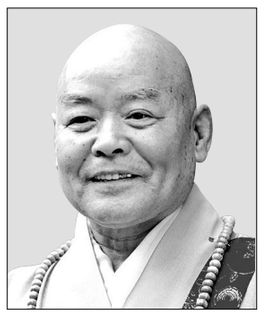
사해오호(四海五胡)의 대중(大衆)들이여!

한산 스님이 "옛거울(古鏡)을 닦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빛을 비춥니까?"라고 한 대문(大文)과 덕산선사가 석화전광(石火電光)으로 벽력같은 할(喝)을 하니, 암두 스님이 아무 말 없이 큰절을 하고 물러나온 대문과 그리고 향곡선사께서 산승에게 "네가 어느 곳에서 나를 봤는고?"하심에 "관(關)!"하고 대답한 이 세 분 네 분의 문답처를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법문(法門)의 낙처(落處)를 알 것 같으면 다른 어떠한 법문에도 바른 답이 흉금에서 흘러나와 여탈자재(與奪自在) 살활종탈(殺活縱奪)의 수완을 갖추고 억겁세월이 지나도록 진리의 낙을 수용하며, 불조(佛祖)와 인천(人天)의 스승이 되어 불은(佛恩)에 보답하고 홀로 하늘과 땅에서 종횡하는 대장부의 활개를 치게 될 것이라.

일대사 인연 통찰한 대오각자 나오길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너무나도 안타까운 미증유(未曾有)의 사건들이 온 나라를 힘들고, 슬프게 하고 있는 동안 시간은 어느덧 동안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앙산(仰山)이 위산(潙山)선사에게 묻기를(山因仰山問) "참 부처님이 어디에 머뭅니까?(如何是眞佛住處)"

위산선사가 "생각하되 생각 없음의 미묘함으로써(以思無思之妙), 신령스런 불꽃의 끝없음을 돌이켜 생각하라(返思靈焰之無窮). 생각이 다해 근원으로 돌아가면(思盡還源), 성품과 모습이 항상 머무르고(性相常住), 현실과 이치가 둘이 아니어서(事理不二), 이것이 참 부처님의 여여함이니라(眞佛如如)"라고 하였는데, 앙산이 이 말씀을 듣고 문득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仰山言下頓悟).

앙산의 깨달음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단지 언구(言句)의 이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정체험(禪定體驗)으로 우주만상에는 성품이 상주하고, 제행은 무상함을 볼 수 있는 도리(道理)를 직관하면, 이론과 실제가 둘이 아님을 알 것이요. 이것이 곧 참 부처가 계신 곳임을 단박 알아차린 앙산의 깨달음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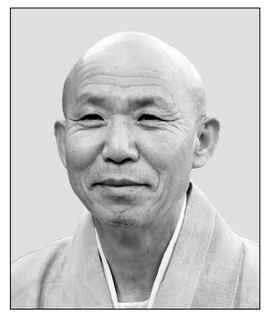
납자들은 화두(話頭)를 참구(參 ㅎ하되 이(理)와 사(事)에 걸림이 없어야만 바로 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선과 악이 둘이 아니고, 생사와 열반도 두 가지가 아닌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치상으로만 본다면 천칠백 공안이 하나도 막힘이 없을 것 같고, 걸림 없이 다 이해가 된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치만 맞고, 사를 무시하게 되면 이것은 공(空)의 도리를 보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어서, 이치와 현실에도 맞아야 도리를 바로 봤다고 인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행정진에 들어가는 납자들에게 당부할 말씀은 이번 결제기간동안 마음을 잘 단속하여, 마음의 파동 즉 번뇌망상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특히 역대조사스님의 번득이는 선지(禪智)의 힘을 받아 혼신의 힘을 다해서, 화두참구에 진력하여 일대사인연을 통철(通徹)하는 대오각자(大悟覺者)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去貪瞋癡除鄙 ㅎ(거탐진치제비린)
十二時中常謹愼(십이시중상근신)
鍊磨眞性若虛空(연마진성약허공)
自然戰退魔軍陳(자연전퇴마군진)
탐진치를 버리고 인색함을 없애고
십이시간 가운데 항상 근신하라
진성을 연마하여 허공과 같이하면
자연히 마군의 떼를 물리칠 것이다.

참소식 알면 불속에서 연꽃 핀다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莫妄想好行參禪(막망상호행참선)
不知終日爲誰忙(부지종일위수망)
若知忙裡眞消息(약지망리진소식)
一葉紅蓮火中生(일엽홍련화중생)

쓸데없는 생각 말고 부지런히 참선하라. 알지 못거라. 누굴 위해 그리 바쁜고? 만일 바쁜 그 속에 참소식을 알면 한 송이 연꽃이 불속에서 피리라. 〈중략〉

근세의 고승인 경허 스님께서는 침체된 선불교를 중흥시킨 중흥조이십니다. 스님은 아홉 살 때 모친을 따라 경기도 광주 청계사에 입산하여 계허(桂虛)화상을 스승으로 축발하고 법명을 성우(惺牛)라고 했습니다.

스님은 불교의 일대장교(一代藏敎)는 물론이고, 유교의 사서오경(四書五經)을 통달하고, 동학사에서 학인을 가르치는 대강백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환속한 스승인 계허화상이 보고 싶어 길을 나섰는데 천안 근처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뇌성벽력이 일더니 폭우가 쏟아져 비를 피하여 어느 집 추녀 밑으로 들어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얼씬도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열자가 번져 전염이 되면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밤새도록 거리에서 비를 맞으며 생각하니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말로는 생사와 열반이 허공 꽃에 불과하다 했으나 막상 죽음이 닥쳐온다고 생각하니 두렵고 다리가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스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동학사로 돌아와 학인들을 해산하고, 이로부터 문을 닫아걸고 단정히 앉아 밤새워 정진하는데 턱 끝에 송곳을 받쳐놓고 용맹정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기를 3개월이 지났을 때 어느 날 한 사미가 "소가 되어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하고 물었는데 스님은 이 말끝에 크게 깨달아 오도송을 읊었습니다.

忽聞人語無鼻孔(홀문인어무비공)
頓覺三千是我家(돈각삼천시아가)
六月燕岩山下路(유월연암산하로)
野人無事太平家(야인무사태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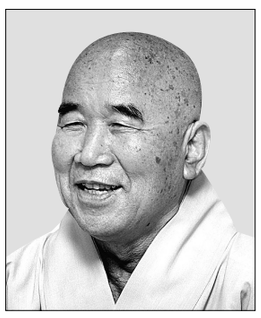
문득 콧구멍이 없다는 소리에, 삼천대천 세계가 내 집임을 깨달았네. 유월 연암산 아랫길에, 일없는 들사람이 태평가를 부르네.

子午慇懃修白業(자오은근수백업)
不須虛負好光陰(불수허부호광음)
爭似無爲實相門(쟁사무위실상문)
一超直入如來地(일초직입여래지)

밤낮으로 간절히 도를 닦아서, 좋은 세월 헛되이 보내지 말라. 어찌 함이 없는 실상문에, 한 번 뛰어 여래지에 바로 들어감과 같으리오.

다음이라는 변명 마음서 지워라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宿昔靑雲志(숙석청운지)
蹉ㅏd白髮年(차타백발년)
誰知明鏡裏(수지명경리)
形影自相憐(형영자상련)

오랜 옛 적에 품었던 청운의 뜻이여! 의지와는 달리 어느덧 백발이 되었네. 누가 알았겠는가? 거울속의 얼굴을 보면서 안타까워 할 줄을.

산천의 초목도 선정에 드는 삼동겨울의 문턱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 대중도 언제나 결제에 들어갑니다. 결제의 초입에는 모두가 의지를 굳게 다지고 반드시 공부의 성취를 보고야 말겠다고 결심합니다.

초지일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 것입니다. 생사는 폭포와 같아서 잠시도 여유부릴 틈이 없는데도 어느덧 망념의 꼬임에 빠져버립니다. 결제에 들어가는 각자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간절한지부터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때가 되어서 의례히 하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공연히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고인의 말씀을 뼈에 새긴 뒤 한 바탕 공부를 지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나약한 의지는 한 가지씩 이유를 붙이고 변명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내고 맙니다. 어느 날 거울 속에 비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아무리 안타까워하고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훗날 그런 통한의 아픔을 맛보지 않으려면 결제하는 오늘 자신의 모습을 냉정하게 비추어 보며 경책해야 합니다.

"두 번 다시없을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사무치게 파고 들어가라"고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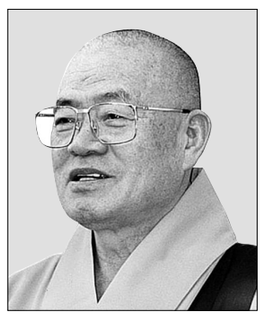
인생에 있어서 한창 때는 두 번 오지 않고 하루에 있어서 새벽이 다시 오지 않는 것처럼 공부인에게 다음은 없습니다. 다음이라는 변명은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마음속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 화두를 들고 생사의 큰 적과 맞붙어야 합니다. 〈중략〉

口似醉人心似月(구사취인심사월)
回途垂手入塵時(회도수수입전시)
無明山上大法炬(무명산상대법거)
煩惱海中船筏師(번뇌해중선벌사)

술 취한 듯 횡설수설 하지만 마음은 밝은 달 같구나. 이제 가던 길 되돌려 중생들 세상으로 들어갈 때라네. 무명의 높은 산위에서 빛나는 진리의 횃불이 되고 거센 생사번뇌의 바다 건너가는 훌륭한 선장이 될지어다.

삭발·가사장삼만이 참된 출가는 아니다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



一步二步三四步(일보이보삼사보)
不落左右前後去(불락좌우전후거)
山盡水窮無人處(산진수궁무인처)
不勞踏着本故鄕(불로답착본고향)

한 걸음 두 걸음 세 네 걸음으로 유와 무와 망상에 떨어지지 말고 가라. 산이다 하고 물이다 하고 인아사상 없는 곳에 힘들이지 아니하고 본고향에 이르리라.

時會大衆(시회대중)은 欲求何事(욕구하사)오 爲求衣食耶(위구의식야)아 爲求名利耶(위구명리야)아 爲求財色耶(위구재색야)아 旣云總否(기운총불)인댄 爲求何事(위구하사)오 但爲削髮(단위삭발)하고 身着染衣(신착염의)하고 自住蘭若消日(자주난야소일)하면 不名眞出家(불명진출가)요 能發憤心(능발분심)하야 速斷煩惱妄想(속단번뇌망상)하고 勇猛精進(용맹정진)하야 圓成正覺(원성정각)하고 普利群生(보리군생)하야 同入大涅槃(동입대열반)어 是名眞出家(시명진출가)니라.

시회대중은 무슨 일을 구하고져 하는고? 의식을 구하고져 하는가? 명리를 구하고져 하는가? 재물과 색을 구하고져 하는가? 다 아닐진댄 무엇을 구하는고?

다만 삭발하고 몸에 가사와 장삼을 입고 절에 머물러 소일하면 이름이 참된 출가가 아니요. 능히 분심을 발해서 속히 번뇌망상을 끊고 용맹 정진해서 원만히 정각을 이루고 널리 군생을 제도해서 한가지로 열반에 들게 하는 것이 이것이 이름이 참다운 출가니라.

若人端坐反照觀(약인단좌반조관)
刹刹塵塵是眞佛(찰찰진진시진불)
三佛形儀總不眞(삼불형의총부진)
箇箇本分是眞佛(개개본분시진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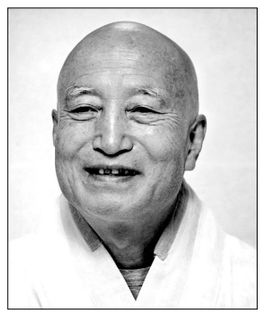
만약 사람이 단정히 앉아 반조해 관하면 세계마다 티끌마다 참다운 부처님이로다. 법신보신 화신불의 형상은 참부처님이 아니요. 개개인의 본마음이 참다운 부처님이로다.

我是我(아시아)요 汝是汝(여시여)인데 佛是何物(불시하물)고? 打柱杖一下云山不動(타주장일하운산부동)하고 水卽動(수즉동)이로다. "咦(이)"

나는 나고 너는 너인데 부처는 이 무슨 물건인고? 주장자를 한번치고 이르시되 산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물은 곧 움직이는도다. "이"

집착은 곧 무형의 족쇄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현재 한국에서 간화선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위기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간화선은 장구한 역사와 더불어 훌륭한 수행법이며 여전히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요즘 간화선이 왜 비판에 직면해 있는가를 겸허히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간화선자들이 백가성찰의 철저한 정진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함으로 간화선의 위기를 극복하여 간화선이 만고에 훌륭한 수행법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행자들이 조금의 자만이나 집착도 없이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정진하여 조사들의 법등을 새롭게 밝힐 수 있을 때 간화선의 지평은 확장될 것이고 간화선은 현대의 문명사회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희망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공부인들의 불교 인생관이 확립돼야 합니다.

공부인의 인생관은 한 수행자의 정신적 지주요, 한 수행자의 마음의 대들보요, 한 수행자의 삶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제자 수행자는 철저한 신심과 철저한 원력과 철저한 공심이 항상 마음에서 떠나선 안 됩니다.

그리하여 나의 설자리를 바로 알고, 나의 할 일을 깊이 깨닫고, 내가 살아가는 목표를 옳게 세우고, 나의 생명을 불교라는 높은 이념에 바칠 때 불교의 사명적 자아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사명감이 우리를 위대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용감하게 하고, 부지런하게 하고, 진지하게 하고, 견성하게 하고, 중생제도하게 합니다.

공과 유, 시와 비, 성과 패, 고와 락, 해탈과 속박 등에 집착하지 맙시다. 집착하면 무형의 족쇄를 채우는 거와 같나니…

本無生滅事(본무생멸사)
何有去來時(하유거래시)
水河中發焰(수하중발염)
鐵樹上開花(철수상개화)

본래 나고 멸하는 일 없는데 어찌 오고 감이 있으랴 물속에 불꽃이 일어나고 쇠나무에 꽃이 핀다.

지면 관계상 법어 전문을 싣지 못했습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